



## 박지성 1골 1도움 '화려한 피날레'

공격포인트 14...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새 역사  
맨유 우승 견인차...챔스리그까지 '더블' 기대

'산소 탱크'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8호골과 6호 도움을 올리며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새롭게 썼다.  
박지성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블랙풀과의 2010-2011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21분 선제골을 뽑아내고 후반 17분 안드레손의 동점골을 도우며 팀의 4-2 대승에 앞장섰다. 지난달 13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첼

시와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매달리는 결승골을 터뜨린 지 한 달여만 득점포로 이번 시즌 8호 골이다. 정규리그에서는 5호골.  
이로써 박지성은 올 시즌 8골 6도움으로 14개의 공격포인트를 작성해 지난해 이청용(볼턴)이 기록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 공격포인트 13개(5골 8도움)를 뛰어넘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5골 3도움)와 컵 대회(커뮤니티실드 포함 2골 2도움), Uefa 챔피언스리그(1골 1도움)를 합쳐 공격포인트 14개(8골 6도움)를 기록하게 된 박지성은 오는 29일 FC바르

셀로나(스페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새 기록'에 도전한다.  
2위 첼시는 이날 에버턴에 0-1로 져 승점 71점의 2위에 머물렀고 볼턴 원더러스에 2-0으로 이긴 맨체스터 시티(승점 71)와 아스널(승점 68), 토트넘 홋스퍼(승점 62)가 3~5위를 차지했다.  
프리미어리그 잔류 경쟁을 벌였던 5개팀 가운데 블랙번 로버스(승점 43)와 워건 애슬레틱(승점 42), 올버햄프턴(승점 40)이 살아남은 반면 버밍엄시티와 블랙풀(이상 승점 39)이 나란히 2부리그인 챔피언스리그로 추락했다.  
이날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전반 21분 하프라인 인근에서 길게 올라온 패스를 베르바토프가 왼

쪽 측면에서 슬쩍 방향을 바꿔주자 정면에서 달려들며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8호골이었다.  
반격에 나선 블랙풀은 전반 40분 찰리 아담이 강력한 왼발 프리킥 슈팅으로 1-1 동점을 만들어내더니 후반 12분에는 게리 타일러 플레처가 정면에서 때린 오른발 슈팅으로 2-1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5분 뒤 후반 17분 박지성의 왼발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박지성은 왼쪽 측면에서 정면을 향해 낮게 깔아서 날라롭게 패스를 찰리플레처 정면에서 달려들던 안드레손이 눈스톱 왼발슈팅으로 연결, 블랙풀의 골망을 갈랐다. 시즌 6호 도움.  
박지성은 19분 마이클 요언으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 조광래·이회택 대표 선발 '충돌'

"기술위 간섭 말라" "조직원답게 처신하라"... 축구협 파행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 "감독의 고유 권한인 선수 선발에 간섭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감독은 23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세르비아, 같은 달 7일 가나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할 27명의 대표 선수를 발표하고 나서 협회 기술위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아 기다렸다는

듯이 최근 기술위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조 감독은 "국가대표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인 대표 선수 선발에 대한 기술위원장과 대표팀 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의 언론 인터뷰 시 협회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도 답변을 해 달라"며 기술위와 이회택 기술위원장에 요구

했다.  
조 감독은 "기술위의 독자적인 선수 선발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감독을 불신인하고 대표팀 전체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로 생각된다"며 "국가대표팀 코치진이 차출 대상 선수 명단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술위원장이 명단을 함부로 내팽개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수 선발은 협회 정관상 기술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조 감독은 협회 조직의 일원답게 처신하라"고 맞서 대표팀 운영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가대표 명단에는 박주영(AS모나코), 이청용(볼턴) 등 유럽과와 지동원(전남), 이용래(수원) 등 K리그 스타들이 포함됐다. 특히 프랑스리그 유스에서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친 정조국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서울의 고명진은 첫 대표팀 발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승현(전북), 신형민(포항) 등도 새롭게 대표 발탁됐다.  
조광래호는 오는 31일 정규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파주 NFC)에서 소집된다. /김여울기자 wool@연합뉴스

우승트로피 '번쩍' '산소탱크' 박지성이 23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블랙풀과의 2010-2011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4-2 대승으로 이끈 뒤 정규리그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화 복귀 안영명 KIA팬에 '지각 작별'

### 투수 전태현 군산구장서 공익 근무 중

친정 한화로 복귀한 안영명이 22일 군산에서 타이거즈 팬들에게 뒤늦게 '작별' 겸 '안부' 인사를 했다.  
지난해 장성호와의 3대3 트레이드를 통해 KIA에 새 동지를 틀었던 안영명은 올 시즌 이범호의 보상선수로 다시 한화로 돌아왔다. 당시 오른팔 부상으로 재활 중이던 안영명은 이날 예야 1군에 올라 마운드에 섰다.

안영명은 "KIA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다. 한화가 오랫동안 몸담은 친정인데도 처음 복귀했을 때는 어색함이 느껴질 정도로 호랑이 팬들에게 정도 많이 들었다"며 "인사도 못하고 떠났는데,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뒤늦은 작별인사를 했다. 안영명은 최희섭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는 등 1과3분의이닝 동

안 2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군산월명구장에서 공익근무 중인 투수 전태현도 "근무 중 이상 무"를 외쳤다. 2007년 KIA에 입단한 군산상고 출신의 전태현은 '괴물' 류현진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눈길을 끌었던 유망주로 지난해 7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군에 입대했다.  
전태현은 "아직 공을 던지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다"며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고 싶다"고 인사했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넥센·롯데 상대 승수 사냥 나선 호랑이 트레비스 어깨·최희섭 방망이에 달렸다

###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호랑이 타선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성적도 덩달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주말 군산을 찾았던 KIA가 한화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13점을 쏟아내며 3연패를 끊고 광주로 돌아왔다. 다승 1위의 LG 박현준, 한화의 '괴물' 류현진의 높은 벽에 막혀 19·20일 패배를 당했던 KIA는 21일에도 헛방망이질을 하면서 4-6으로 3연패를 찍었다.  
하지만 윤석민이 앞장섰던 22일에는 최희섭의 축포와 함께 장단 15안타가 터지면서 KIA는 3승3패로 지난주 승패의 균형을 맞췄다.

하위권인 한화와의 대결에서 로페즈를 투입하고도 워닝시리즈를 가져가지 못한 만큼 KIA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한 주였다.  
승을 쟁긴 3경기에서 KIA 타자들은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하면서 31점을 합작했다. 3경기 평균 득점이 10점이 넘었다. 하지만 패로 남은 3경기에서는 6점을 만들어내는데 그치며 답답한 공격을 펼쳤다.  
KIA는 이번주 넥센과 롯데를 상대로 승수사냥에 나선다. 주중 목요일로 올라가 넥센과의 대결을 갖는 KIA는 주말 홈으로 돌아와 롯데를 상대로 설욕전을 벌인다.  
순위에서는 KIA가 4위를 지키며 앞서있지만 8위 넥센과는 올 시즌

3승3패로 힘겨투기를 하고 있고, 5위 롯데에는 2승4패로 상대전적에서 뒤져있다. 특히 연승행진 길목에서 만났던 롯데는 KIA에게 빼어난 2패를 안겨준 난적이다. 5연승을 달리던 지난 14일 KIA는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일격을 당하며 패를 기록한 뒤 15일 세타자 연속 홈런이라는 흥련소를 펼치고도 연장 끝내기 패를 당했다.  
이번주 두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좌완 트레비스의 어깨가 무겁다. 24일 선발로 나서는 트레비스는 올 시즌 처음으로 넥센 타자들을 만나게 된다. 선발 로테이션상 29일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트레비스는 올 시즌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남겨준 롯데를 상대해야 한다.  
타선에서는 최희섭의 역할이 중요하다.  
허리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최희섭은 지난 19일 팀에 복귀했다. 그러나 최희섭의 복귀 후 팀은 3연패에 빠졌고 4번 자리는 이범호에게 내줬다. 팀의 연패가 자신의 탓인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던 최희섭은 22일 한화전에서 솔로포를 터트리며 한방 갈증을 풀었다. '빅 초이'가 김상현이 부상으로 빠진 클린업트리오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까지 살릴지 주목되는 한 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11 프로야구 주간 5월 23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승부	승률	득점	실점	연속
1 SK	37	25	12	0	0.676	0	1	승
2 LG	41	24	17	0	0.585	30	3	승
3 삼성	41	22	18	1	0.550	45	5	승
4 KIA	41	20	21	0	0.488	70	1	승
5 롯데	40	18	20	2	0.474	75	2	패
6 두산	39	17	20	2	0.459	80	4	패
7 한화	42	16	25	1	0.390	110	1	패
8 넥센	39	15	24	0	0.385	110	5	패

#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